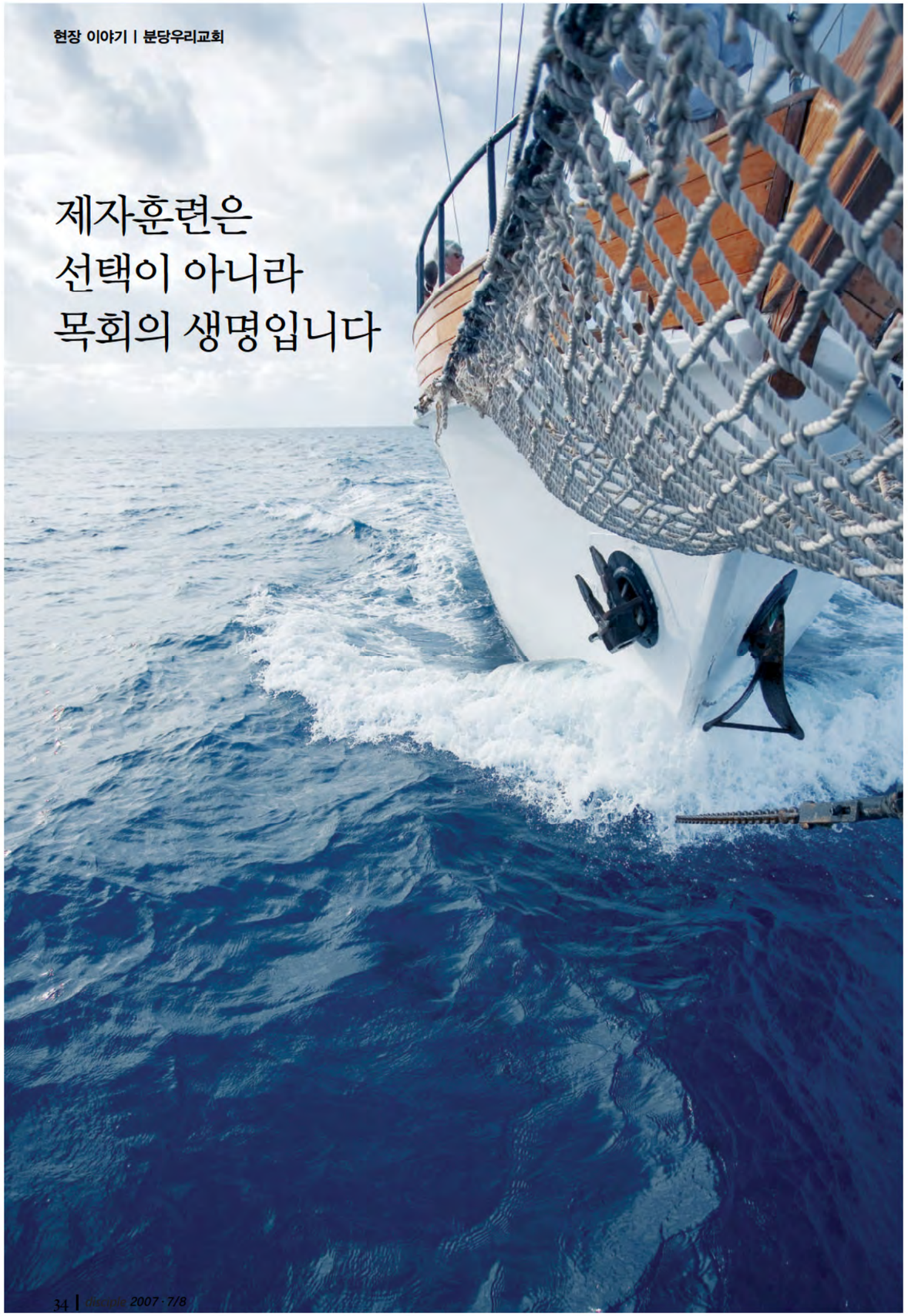

제자훈련은 선택이 아니라 목회의 생명입니다

이찬수 목사는 일리노이 주립대학교를 거쳐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했다. 현재 총회교육위원회 교육전문위원, 해외 유학생 수양회인 KOSTA 국제본부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사랑의교회에서 10여년 동안 부교역자로 섬기다가 2002년 분당우리교회를 개척해 건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로 세워가고 있다.

낯선 곳으로의 여행은 기대와 함께 두려움을 품게 한다. 여행과 관련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숙련된 안내자가 없을 경우 그리고 무엇보다 여행 자체에 관한 경험이 부족할 때는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큰 법이다. 여행뿐 아니라 새로운 일을 만날 때에도 기대와 함께 두려움이 공존한다. 사실 경험되지 않은 영역에서는 작은 어려움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신속하게 판단하지 못한다.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시행착오를 겪어야 한다.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준비가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면 목회자나 성도 모두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분명 목회에도 숙련된 안내자가 필요하고 풍부한 정보와 경험이 필요하다. 부족한 준비를 대신 할 수 있는 묘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렇게 정량화할 수 있는 요소들 외에도 중요한 것이 많다. 수치로는 환산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목회이다.

〈디사이플〉은 건강한 교회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는 분당우리교회를 찾았다. 개척 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그 속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 교회와 나눌 은혜를 찾기 위해서다.

경험 그 이상의 것, 종의 도리

개척한 지 이제 5년, 분당우리교회는 많은 경험을 가진 교회가 아니다. 담임목사인 이찬수 목사 역시 목회 경험이 풍부한 편은 아니다. 이 목사는 나이 서른에 부르심에 순종한 늦깎이 목회자이다. 그리고 사랑의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있었던 10년 동안 꼬박 청소년 사역을 전담했다. 그래서 아직도 그를 청소년 사역 전문가로 기억하는 이들이 많다. 이 목사가 스스로 밝히듯이 분당우리교회를 개척하기까지 이 목사는 장년 사역 경험이 전무했다. 물론 어깨 너머로 본 것은 있지만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었다.

2007년 6월 현재 분당우리교회는 8,000여 성도(장년 6,200여 명, 주일학교 1,800여 명)가 함께 하는 교회가 되었다. 실로 놀라운 성장 속도이다. 주일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은 1/4 정도로 여느 교회들의 경우와 비슷하게 장년 중심의 교회이다. 그래서 분당우리교회의 성장 원인을 청소년 사역에서 찾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개척 이후 이 목사는 철저히 장년 사역에 집중해 왔고, 청소년 사역은 위임해 왔다. 이 목사는 분당우리교회에 대한 주변의 평가 속에 오해나 과장이 많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분당우리교회는 미완성입니다. 여전히 과정 중에 있습니다. 결코 현재 상황을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공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성공에 대한 관점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분당우리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알려져 있는 것처럼 분당우리교회를 개척하기 이전에 저는 10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의 청소년 사역에 대해 과장된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를 '청소년의 대부다', '청소년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등의 이야기를 하는데, 모두 과장된 것입니다. 다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저는 청소년을 사랑하거나 청소년에게 관심이 있어서 청소년 사역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어진 일이기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주어진 일이라서 했다는 것이 결코 소홀함이 있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정말 그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의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지금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분당우리교회 개척한 이후의 저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급격하게 변신했습니까? 청소년 사역을 10년이나 했는데, 청소년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이 갑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청소년 사역에 관한 마음을 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척이 좋아서 개척을 한 것이 아닙니다. 미리 정해둔 스케줄을 따라 진행한 것이 아닙니다. 개척 역시 맡겨진 일이라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종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목사는 그의 고백처럼 사랑의교회에서 10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하는 동안 주어진 사역에 충실했을 뿐, 개척을 포함한 미래를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 목회를 포함한 인생에 관한 시간적 스케줄을 하나님께 완전히 반납하고 오로지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했다. 이 목사가 강조하는 '종의 도리'는 모든 사역자가 깊이 생각하고 새겨야 할 메시지이다. '종의 도리'가 의미하는 것이 사역과 인생에 대해 무심하라는 뜻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안다. 사역과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도권을 철저히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바로 이것이 목회자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이자 자세이다. '종의 도리'는 어떤 경험보다 우선한다.

"마음의 족쇄를 채우듯 서원하듯 하나님께 시간적인 스케줄을 반납한다는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는 무엇을 하고 언제부터는 무엇을 해야지라는 식으로 계획을 세우면 제가 섬기는 아이들이 사역의 목적이 되지 않고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시간적인 스케줄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인 사인을 주시지 않는다면 평생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인생을 끝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당우리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 목사는 철저히 '종의 도리'를 따랐다. 이 목사는 분당우리교회의 시작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2001년 10월 옥한흠 목사님이 사전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부르셔서 개척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기 이전까지 저는 개척에 대한 계획이나 준비가 없었습니다. 늦가을 대각성전도집회를 마친 후였던 것 같습니다. 갑작스런 말씀이었지만 존경하는 스승이자 멘토이셨던 옥 목사님의 말씀이었기에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3개월간의 준비 기간 후에 개척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장년 사역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목회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은 목회 원칙, 목회 원리였지 목회적 도구나 방법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성도를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원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지만, 교구는 어떻게 구성하고 나누는지조차 몰라 사랑의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를 찾아가 조언을 구해야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돈키호테에 비길 만큼 무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한 교회의 뿌리, 한 사람 철학

10년간의 사랑의교회 사역을 통해 이 목사가 배우고 익힌 것은 '한 사람 철학'이었다고 요약했다. 이 목사는 기억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하나의 사건을 소개했다.

"옥한흠 목사님을 옆에서 뵈면서 느낀 것은 그분이 정말 한 사람을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역자 회의 때 육체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 한 분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그분의 고통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자신을 능력 없는 목회자라고 자책하면서 눈물 흘리는 모습을 뵌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목회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천 명의 성도가 모이든 만 명의 성도가 모이든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목사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한 사람 철학'이 분당우리교회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저는 개척 후에 어떻게 하면 한 사람 철학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것에만 집중했습니다. 10년간의 사랑의교회 경험을 통해 명확히 본 것이 있었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제자훈련에 집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초기에는 등록 심방을 했습니다만 조금 하다가 등록 심방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개척 교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새벽기도회를 인도하지 않았을 뿐더러 참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일설교와 제자훈련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때에는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가장 중요한 부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개척 후 성도들은 몰려오는데 훈련된 리더가 부족했습니다. 무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육할 대상은 많은데 훈련된 사역자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는 혼자 4개의 제자반을 맡았습니다. 저도 힘이 들었지만 초기의 순장님들도 큰 고생을 했습니다. 다락방을 2개씩 맡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3개씩 맡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리더로 열심히 사역하다가 온 분들이 많았지만 그분들을 리더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제자훈련 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리더로 세우지 않은 것입니다. 훈련된 리더가 2개, 3개씩 맡는 경우는 있어도 훈련되지 않는 리더는 세우지 않는다는 것이 기준이었고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모두들 힘들어했지만 예외를 두지 않고 유혹을 이겨낸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과정을 함께 겪으면서 교회 내에 자연스럽게 제자훈련 목회의 토대가 만들어졌고 한 사람 철학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 목사는 분당우리교회에 대한 주변의 평가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제자훈련 때문에 분당우리교회가 성장을 했다'고 말하는 것은, 제자훈련을 교회성장의 도구나 부흥의 수단으로 보는 잘못된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한다.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 제자훈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훈련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도 아닙니다. 분당우리교회에 오는 분들 중에는 제자훈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제자훈련은 목회의 본질이니까 하는 것이지 제자훈련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자훈련 때문에 교회가 건강해졌다고 말해야 옳습니다. 제자훈련은 선택이 아니라 목회의 핵심이고 생명입니다."

이 목사는 제자훈련이 만든 기적이 있다면 외적으로 보이는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의 체질을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람들은 개척 5년 만에 장년 6,200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된 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인기 있는 연예인이 사람들을 모은다면 이보다 더 많은 숫자를 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당우리교회가 경험한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지만 한 번의 분쟁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를 내면서 싸운 적도 없습니다.

현재 분당우리교회는 초교파교회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 만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분당우리교회가 한 사람 철학 위에 든든히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제자훈련을 중심으로 교회의 리더십이 집중되어 있지 않았다면 저마다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많았을 것이고 결국 크고 작은 분쟁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저는 제자훈련 목회의 힘이 무엇인지를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 철학이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우는지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한 생

지난 5년 동안 저는 제자훈련 목회의 힘이
무엇인지를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 철학이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우는지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한 생각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는 데 있어 제자훈련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 사람 철학과 제자훈련은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각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는 데 있어 제자훈련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 사람 철학과 제자훈련은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설득과 긍지 그리고 우선순위

교회가 담임목회자 한 사람의 생각과 역량만으로는 채워질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안다. 핵심 지도자들과 함께 교회를 이끌고 나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다.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한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것은 무척이나 힘이 드는 일이다. 힘들다고 포기할 수도 없기에 지혜가 필요하다. 분당우리교회도 전혀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훌륭하게 문제를 해결했다. 공동체를 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면 담임목회자와 중간 지도자 사이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 목사는 강조한다.

"저는 담임목회자와 동역하는 중간 지도자 사이에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득과 긍지입니다. 끊임없는 설득이 필요합니다.

사실 분당우리교회에 오셨다가 정착하지 못하고 떠난 분들이 많습니다. 더 많은 숫자가 와서 묻혔지만 말입니다. 개척 초기에 심심치 않게 개인적인 면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예전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할 때 전체 건축비의 절반을 헌금했다고 자신을 소개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정말 달콤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분에게 드린 이야기는, 2년 동안 과거의 경력 다 내려놓고 아무런 봉사 안 하고 훈련 받을 자신이 없다면 분당우리교회가 어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척 교회 목사로서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의 분당우리교회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교단 출신이든 관계없이 훈련이라는 한 통로를 통해서만 리더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어야 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게 다행이라고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한 토대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목회자들이 반드시 버려야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아울러 내 사람으로 만들려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왜 이 땅에 5만 개나 되는 교회가 있습니까? 이웃 갈보리교회에 어울리는 교인이 있고 분당우리교회에 어울리는 교인이 있습니다. 한 생각을 가지고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이란 통로를 통하지 않고는 사람을 세우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미 세워진 지도자들은 긍지를 느낍니다. 자신보다 훨씬 더 잘 갖추어진 사람들인데도 그 통로를 거치지 않았기에 세우지 않는 것을 보면 자신의 위치에 대해 긍지를 느끼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설득을 통해 핵심 지도자들이 같은 목회 철학을 공유할 때까지 담임목회자는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예외 없는 적용을 통해 핵심 지도자들이 자신의 동의가 옳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담임목회자는 실제적인 실천을 통해 스스로 목회 철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성도들은 담임목사가 목회의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두는지에 대해 정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집회 요청이 있을 경우 저는 주일 강단보다 화요일 오전에 있는 여자 순장반에 더 무게를 둡니다. 주일은 다른 좋은 강사가 설교를 하면 교인들도 좋아하고 교회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순장반과 일정이 충돌되는 집회는 가지 않습니다.

개척 초창기 이야기입니다. 캐나다에서 연합집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8, 9백여 명이 모이는 중요한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순장반과 스케줄이 겹쳐서 거절했습니다. 그때 10여 명의 순장들이 지하에서 모일 때인데 그 적은 인원 때문에 집회를 거절한다고 화를 내면서 서운해 하더군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회와 저의 목회철학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순장반에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순장들이 울더군요. 저는 지금도 주일 대예배만큼 순장반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순장들에게 말합니다. 담임목회자가 순장반을 소중히 여기면 순장들도 순장반을 소중히 여깁니다."

도구 탓하지 말고 목수의 역량을 키워라

이 목사는 제자훈련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 시각에 대한 솔직한 심정과 함께 자신의 고민을 함께 털어놓았다.

"모든 동역자들이 함께 갖는 아픔일 텐데, 훈련이란 통로를 지나면서도 변화가 없는 것을 볼 때 사역자로서 아픔을 느낍니다. 1년 내내 씨름을 했는데도 변화가 없을 때는 내가 참 능력이 부족하다는 자괴감을 느낍니다. 제자훈련이란 틀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만, 제자훈련해도 변화가 없다는 불평을 듣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어렵게 하나 타협해서 쉽게 하나 똑같이 변화가 없다면 쉽게 갈까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훈련이란 도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기에 오히려 작년 말 교역자 수련회 때부터 제자훈련의 기초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 자신부터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광인론부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화요일 교역자 회의도 목회전략회의에서 제자훈련 과정을 한 과씩 공부하고 나누는 형태로 바꾸었습니다. 순장반도 형식을 바꾸었습니다. 겨울 순장수련회 때도 원론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연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수가 미숙해서 생긴 문제이기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목사는 제자훈련을 목회 현장에 적용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제자훈련이란 목회적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기초부터 다잡은 올해 분당우리교회의 제자훈련은 작년보다 훨씬 안정적이라고 이 목사는 말했다. 교역자 모임과 순장반에서도 좋은 반응과 열매가 있다고 했다.

"흔들리는 것은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목수의 문제입니다. 선장이 무게를 두지 않으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선장부터 다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연장에 대한 갈등을 겪는 순간부터 목회철학이 흔들립니다. 평생 연장만 바꾸다가 끝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를 제대로 잡았으면 그 연장을 잘 익숙하게 다룰 수 있을 때까지 연장 탓을 하면 안 됩니다. 분당우리교회를 보십시오. 제자훈련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좋은 연장이라는 것이 지난 5년을 통해 검증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잡동사니 같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도 제자훈련을 통해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목사는 그가 제자훈련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건 하나를 어렵게 털어 놓았다. 작년 초에 있었던 사건이다. 이웃 교회가 건축한 후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커 교회를 넘기려고 이 목사를 찾아온 것이다. 건축에 들어간 비용만 지불하고 교회를 인수해 달라는 것이었다. 당시 시세와 비교할 때 너무도 적은 액수였다. 제시된 금액이 170억이었는데 그냥 사서 되팔아도 100억은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공간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에 너무도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었다. 처음에는 인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당회에서도 동의를 했다. 그러나 이 목사는 스스로 그 기회를 내려놓았다.

"첫 제안을 받았을 때 가슴이 뛸 정도로 흥분했습니다. 2,000석 규모의 예배당과 주변 여건이 너무 좋은 곳이었기에 최적의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훈련 목회철학 때문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포기하면서 너

흔들리는 것은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목수의 문제입니다.
선장이 무게를 두지 않으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선장부터 다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연장에 대한 갈등을 겪는 순간부터
목회철학이 흔들립니다.
평생 연장만 바꾸다가 끝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를 제대로 잡았으면
그 연장을 잘 익숙하게 다룰 수 있을 때까지
연장 탓을 하면 안 됩니다.

무 아까운 기회라서 몸에 병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며칠을 고열로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은 확장할 때가 아니라 내부를 다질 때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성장 속도도 모두 제자훈련 틀에 담기지 않는데,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 제자훈련 틀이 와해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내려놓았습니다. 공간이 확장이 되면 또 채워질 것인데, 사람 모으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데 집중하자는 마음으로 내려놓은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맡겨 준 만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건축할 계획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이끄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분당에서 마지막 기회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확장할 때가 아니라 터를 다질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훈련의 틀을 허물고 선택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때는 참 아까워서 몸이 아플 정도였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내려놓은 것이 너무 잘된 일이었습니다."

절대 여백의 시간

이 목사가 개척 교회 목사로서 경험도 부족한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앞을 향해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목회자로서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한 절대 여백의 시간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전형적인 올빼미형으로, 개척하기 전까지 42년간 반복된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척 후에 위기를 느끼면서 의지적으로 새벽형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루 중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 시간밖에 없어 새벽 4시 30분을 기준으로 출근하는 9시까지 절대 여백의 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벌써 탈진하거나 소진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 설교의 중요한 포인트를 얻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에 대해 먼저 돌아봅니다. 예를 들어 그 전날 교역자 회의에서 누군가의 실수를 발견하고 제가 심하게 화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담임목사가 조금 지나쳤다고 해서 누가 그것을 지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여백의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너 심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사과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목회의 방향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부터 개인적인 영성을 지키는 부분까지 하나님과의 긴밀한 만남을 통해 지도를 받는 시간입니다. 목회자로서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죽지 않고 살기 위해 마련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내면에 숨어 있는 탐욕을 줄이고 분별력을 얻습니다."

이 목사는 함께 사역하는 부교역자에게도 사역이 아무리 바빠도 여백의 시간을 확보하라고 강조한다. 아무도 없는 시간을 활용해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것을 이야기한다. 출근해서 집에 돌아갈 때까지는 고용된 시간이다. 보통의 직장인들이 자신의 영성을 지키고 성장하기 위해 철저하게 몸부림치면서 새벽을 이용하는 것처럼, 꼭 새벽이 아니더라도 목회자에게 절대 여백의 시간이 없다면 자신을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목사의 지적이다.

비전 그리고 도전

개척 초기 이 목사는 30여 명의 성도들이 교회의 사명과 목적에 대해 토론하여 그들 스스로 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네 가지 목표를 세우도록 했다.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가정을 회복시키는 교회, 젊은이들을 깨우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그것이다. 교회를 이끌어 갈 비전을 목사 한 사람의 생각에 머물도록 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공유함으로써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비전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우 구체적으로 밝혀 두어 누구나 분당우리교회의 지향점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다음은 공개되어 있는 비전의 일부이다.

"분당우리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교회의 꿈'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교회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일에 교회가 존재하고 조직이 존재하며 재정이 쓰이고 계획이 세워집니다. 그 꿈을 바탕으로 분당우리교회는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가정을 회복시키는 교회, 젊은이를 깨우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비전을 구체화시켰습니다. 분당우리교회는 성직자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 헌신자 중심의 교회입니다. 분당우리교회는 각 가정이 전도의 중심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개인들의 변화된 삶과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된 공동체의 특성이 지역사회와 한국 교회 그리고 열방으로 그 영향력이 확대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되어 있는 비전을 통해 새롭게 교회를 찾는 이들이나 이미 교회의 식구가 된 이들에게 분당우리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리더의 머릿속에 담겨 있는 비전과 공동체 앞에 선포된 비전은 확실히 다른 성격을 갖는다. 공개된 비전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동력이 된다. 또한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고 평가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모든 교회가 가져야 하는 본질적인 목표들이지만 결코 쉽게 이루기 힘든 비전을 설정하고 도전하게 된 동기에 대해 이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역사발전의 축에서 지금의 교회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영화 〈타이타닉〉 후반부에 투입된 사람들입니다. 영화의 전반부의 장면처럼 파티복을 입고 여유롭고 즐길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이 비정상이라면 그런 상황에 맞추어 자신의 위치를 설정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제가 옥한흠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분에게서 목회를 배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단순하게 본떠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당우리교회가 제2의 사랑의교회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옥 목사님 세대에서는 잠자는 평신도를 깨우는 것이 사명이었다면, 저와 분당우리교회에 주어진 사명은 깨어난 평신도들이 세상에 스며든 소금처럼 실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서만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 분당우리교회의 목표입니다. 실제적으로 지역사회를 책임지고 섬기는 것이 분당우리교회의 사명입니다. 저 교회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목표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평가를 받는 이 상황 속에서 '종교관이 달라서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교회는 참 좋은 곳'이라는 소리가 나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런 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 목사의 각오에서 현재 정체와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는 한국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점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었다. 표면으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문제의 원인이 되는 뿌리부터 바꾸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어려운 목회 환경 속에서 제자훈련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분당우리교회와 이 목사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작은 희망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은 세상이 외면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변혁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목회의 본질을 좀 더 확실히 붙잡고 정진할 때이다.

〈김건주 목사〉

옥 목사님 세대에서는
잠자는 평신도를 깨우는 것이 사명이었다면,
저와 분당우리교회에 주어진 사명은
깨어난 평신도들이 세상에 스며든 소금처럼
실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서만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
분당우리교회의 목표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척 초기부터 행정목사로 사역해 온 왕재천 목사는 분당우리교회는 문제가 생기기 이전 사전 예방하는 교회라고 소개한다.

"이찬수 목사님이 거듭 강조하는 것이 '목회는 센스이고 타이밍이다'입니다. 성도들이 말해서 움직이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확인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불편이 고조되어 성도들부터 듣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나기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올해 분당우리교회는 소그룹과 제자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몇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 이것 역시 소그룹과 제자훈련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해서가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그 시도 중 하나가 바로 교역자 워크숍이다.

화요일마다 전략회의로 진행되던 교역자 모임을 회의가 아니라 소그룹과 제자훈련 워크숍으로 변경했는데, 교역자들은 이 시간을 통해 교역자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삼고 있다. 성도들로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동역하는 교역자로부터 자신의 약점을 듣는 것이다. 많은 교역자들은 이 시간을 통해 자신 안에 있는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있다. 이 모두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실 드러난 문제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 되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늘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야 급한 일에 쫓겨 다니지 않고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다. '열심'은 모든 것을 해결하는 도구가 될 수 없다. 지혜가 필요하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에만 끌려 다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분당우리교회는 문제를 예방 차원에서 미리 차단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왕재천 목사는 분당우리교회의 성장에는 배경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고 소개한다.

먼저 예배를 통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이 분당우리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다. 그리고 예배는 그들의 다양성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은혜의 장으로서 기능했다. 6천 명이 넘는 공동체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하나의 정체성을 확인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와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소그룹과 제자훈련이 없었다면 무리만 가득한 교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소그룹이 있고 훈련을 통해 리더를 세우는 제자훈련이 있었기에 무리가 무리로 머물지 않고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소그룹과 제자훈련은 분당우리교회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수의 무리와 외적인 숫자에 흔들리기 쉬운 목회자들에게 분당우리교회는 목회에 있어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왕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스스로 교회 공동체를 향해 나아오는 다수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애써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목회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드러나지 않고 쉽게 보이지 않는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집중하는 것이 한 사람 철학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 다른 것들을 내려놓는 절제와 용기가 없이는 이 모두 불가능한 일입니다."

분당우리교회의 사례에서 보듯 '선택과 집중'의 원리가 목회현장에서도 중요한 것은 목회의 핵심을 흐리지 않고 사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삶을 나누고 치유 받는 다락방이 있었기에 지금의 분당우리교회가 있습니다

올해 순장장(여자 순장 대표)으로 섬기고 있는 도명희 집사는 개척 멤버는 아니지만 개척 첫 해부터 순장으로 사역했기에 분당우리교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었다. 도 집사는 분당우리교회에 오기 전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받았다. 사역훈련을 받은 그 이듬 해 남편이 교환 교수로 발령을 받아 2년 동안 미국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사랑의교회를 떠났다. 그리고 귀국 후 분당에 집을 정하게 되면서 분당우리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도 집사가 처음 왔을 때 분당우리교회는 훈련된 지도자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니 훈련은 받았으나 사역경험이 전혀 없던 그도 순장사역에 뛰어들 수 밖에 없었다. 도 집사가 처음 맡은 다락방은 순원이 26명이나 되었다. 많아야 7, 8명 수준이었던 사랑의교회 다락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여건이었다. 첫 순장 사역인데다 인원도 많아 부담이 컸다. 그런데 그 다락방이 성장하고 번식해 지금은 3개의 교구가 되었다.

"매 학기마다 다락방을 분가하면서 부모의 심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분가할 때마다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내어놓는 마음으로 새롭게 순장 사역을 시작하는 분에게 정말 훈련이 잘 되어 있는 분들을 붙여 드렸습니다. 이런 모습은 제가 맡은 다락방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분가해서 새롭게 시작한 다락방이 다시 분가할 때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거듭되면서 분당우리교회의 전체 소그룹이 건강하게 자리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분당우리교회는 올해 여자 순장만 115명에 이른다. 올해만 40여 명이 신임순장으로 세워졌다. 도 집사는 분당우리교회 내에서 소그룹이 갖는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예배시간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강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배 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개척 2년째가 되던 해 순장반에서 예배실 곳곳에 두루마리 휴지를 비치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휴지를 미리 준비하지 못해 당황해 하는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 예배와 담임목사의 설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 하지만 함께 웃고 우는 다락방이 없었다면, 귀납적으로 진행되는 다락방이 없었다면 지금의 분당우리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새가족부를 섬겨왔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분들이 분당우리교회를 찾아오십니다. 다른 교회를 찾다가 위치를 몰라 헤매다가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곳저곳 교회를 탐색하다가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존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힘이 들어 지쳐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저, 교회일 시키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다락방에 참여하면서 치유를 경험합니다."

끝으로 도 집사는 순장 사역의 핵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순장 1년차 때는 경험도 없고 아는 것이 없으니 무조건적고 외우고 연습하고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런 미숙함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순장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해 갔던 질문보다 순간순간 각 사람에게 적절한 질문을 통해 치유하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순장으로서 혼자 많이 이야기하고 온 날은 가슴이 답답합니다. 거의 말하지 않고 순원들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꺼내어 놓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온 날이 가장 기쁩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만져주심을 경험할 때 순장으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